

대기업 신용위험지수 사상 최대

한국은행 올해 3분기 38 예상… 전분기 대비 10포인트 상승

올해 3분기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가 기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더 엄격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은행이 예상한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16년 2·4분기 동향 및 3·4분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이 전망한 종합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와 같은 -19로 조사됐다. 2008년 4분기(-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태도지수가 낮아질수록 은행에 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출태도지수는 0을 기준으로 양(+이면 은행의 대출 조건 완화, 음(-이면 대출 조건 강화)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은행 15개, 상호자축은행 14개, 신용카드회사 8개, 생명보험 회사 5개, 상호금융조합 130개 등 172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5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진행됐다.

한은 관계자는 "3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대기업은 강화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전분기 수준의 대출태도는 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계는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강화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은 기업 구조조정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대출 조건

기여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국내 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 보다 6포인트 하락한 -25로 파악됐다.

이는 2008년 4분기 -38을 기록한 이 후 최저치다.

종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9로 전분기와 동일했다.

기계 주택자금은 2007년 1분기(-4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

되고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3분기 기계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한 -28을 기록했다.

다면 가계 일반자금의 경우 일부 은행이 시장점유율 확보 차원에서 대출 태도를 완화할 방침을 세워 중립 수준(0)으로 전망됐다.

국내은행이 예상한 3분기 신용위험 지수는 2009년 2분기 3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3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전분

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38로 역대 최고치였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기업 구조 조정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수익성 악화와 체무 증가 등의 여파로 전분

기와 비교해 4포인트 상승한 38, 기계

의 신용위험지수는 3포인트 오른 25로 조사됐다.

기계의 경우 연체율 등 건전성 지

표가 인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기계

부채 누증과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용위험성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소폭 증가했다.

비은행 기관에서는 상호금융조합과 생명보험회사 그리고 상호자축은행의 대출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조합의 올 3분기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24, 생보사는 10포인트 감소한 -30으로 나타났다.

상호자축은행은 7포인트 감소한 7이었고 신용카드회사(6)만 전분기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권에 한해 시행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이번달부터 보험권에서도 확대 적용되면 생보사의 대출태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한은은 "신용카드사는 중금리대출 영업 경쟁이 심화한 데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태도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이 예상한 대출수요를 보면 3분기 중 대기업의 대출수요가 완만한 증가세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비우량 중소기업의 운용자금 필요성이 커지고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된 여파로 대출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계 주택자금은 대출수요가 소폭 감소하고 가계 일반자금 역시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줄어들 것으로 진단됐다.

/인천수 기자



이번 비치웨어 특집전은 엘르, 아레나, 레이지비 등 유명브랜드가 대거 참여하고 최대 40%까지 세일한다.

전주 롯데백화점 여름 비치웨어 특집전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종구)은 여름 비치웨어 특집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15일까지 각 층 매장 및 6층 점 행사장에서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엘르, 아레나, 레이지비 등 유명브랜드가 대거 참여하고 최대 40%까지 세일한다.

상품으로는 엘르 래시가드(남/여 4만5,000원, 아쿠아슈즈 3만9,000원, 아레나 여성 비키니 4만9,000원, 남성 래시가드 5만5,000원, 레이지비 래시가드 상의 1만9,000원~7만

9,000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수영복 이민희 파트리너는 "수영복을 제대로 고른다면 자신의 체형을 알미든지 커버해 몸매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슴이 작은 사람은 허리한 프린트를 선택해 시선을 분산시키기 한다는가, 전체적으로 통통한 스타일이라면 검정이나 남색의 짙은 컬러의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내부 경영평가 도내 1위 달성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지난해 내부 경영평가에서 1위의 성적을 거둬 전북지역본부 내 10개 지사 중 최우수 지사로 선정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각 부서의 책임경영제도 강화를 위해 매년 전국 98개 지사의 매출액 달성을,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청렴운영 등 20개 세부 평가 항목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각 도본부별 최우수 지시를 선정하고 있다.

남원지사는 지난해 매출액 315억원을 달성해 공사 자립경영에 기여하고 특히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하고 청렴운영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근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 고객인 농·어업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일등 공기업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이스타항공 신규기종 항공기 추가

이스타항공(대표 김정식)은 5월 2016년 네 번째 신규기종 항공기 1대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항공기는 보잉737-800(189석)기종으로, 등록번호 HL8058을 달고 국내선 운항 후 8월 신규 취항하는 제주-취리히 국제선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항공기는 2012년 9월 제작된 기종으로 보잉사가 최신 항공기 기술로 보잉스카이 인테리어(Boeing Sky Interior)와 유선형 디자인의 천장과 LED등으로 헤드 넓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추가 항공기 도입으로 이스타항공은 17대의(B737-700)기종 3대, B737-800기종 14대 항공기를 운영하게 됐다.

또 올해 잇따른 신규 항공기 도입으로 인해 평균 기령이 2.4년 단축돼 전체 17대 항공기 평균 기령이 약 12년으로 낮춰졌다.

이스타항공 김정식 대표는 "2016년 상반기 네 번에 걸친 최신 기종 항공기 도입을 통해 고객들에게 헤드 넓고 안전한 항공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항공기의 도입과 더불어 국제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항공여행 대중화를 선도해나가겠다"고 했다. /신광영기자

전북농협, 명예이장 통해 농촌에 생기를

박용덕 전주세관장 등 3명 위촉

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은 5월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농촌미을 명예이장 위촉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명예이장은 농협중앙회가 침체된

농촌미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종규 부안군수와 위촉장을 이장과 면장, 주민, 부안지역 농협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강태호 전북농협 본부장은 농진

면 안성리 운산미을, 박용덕 전주 세관장은 백산면 대죽리 대죽미을, 유금용 농협부인군지부장은 상서 면 장동리 분장미을 명예이장으로 위촉돼 해당 면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들 명예이장들은 주민들 애로 사항과 마을 속원사업을 지원해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미을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도·농·기관과의 협동 모델로 발전시키는 역할

을 하게 된다. /고민형 기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현혈자의 날' 직원 단체헌혈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문명국)는 5일 '세계현혈자의 날' 기념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은 전북본부 및 관내지사 직원 500여명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문명국 전북본부장은 "앞으로도 생명나눔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시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10월부터 생명나눔 프로그램인 '현혈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3천례 전사적인 단체헌혈 행사 실시하고 있다. /신광영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